

제인과 로체스터의 편단: 『제인 에어』에서 읽는 식민주의와 가정성의 상관관계

한 예 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인 에어』의 버사를 제인의 억압된 자아로 읽는 기존 비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식민주의 담론의 복합적인 방정식 속에서 버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합의 의미를 재고한다. 작품은 존 에어, 로체스터, 그리고 세인트 존을 통해 당대 식민주의의 다양한 서사의 결을 탐구한다. 여기서 로체스터는 물질적인 이윤, 혹은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위시로 식민지 사업에 뛰어 든 존 에어나 세인트 존과는 달리 그곳에 있는 크리올 여성과 결혼을 통해 식민주의 담론에 관여한다. 바로 그 점에서 로체스터의 식민주의 서사는 버사와의 관계를 경유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식민주의 담론에 내재한 분열적 요소에 대한 호미 바바의 통찰을 바탕으로 버사의 광기를 로체스터의 불안, 즉 식민 담론의 자체적인 분열이 투사된 것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제인과 버사가 공명하는 부분을 특히 주목하는데, 결국 제인과 로체스터가 서로 마치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바로 제인과 로체스터의 교집합인 버사라는 타자의 자리가 된다고 해석한다. 이들의 결합은 버사를 배제하기 보다 오히려 그녀를 받아들이고 체화하여 소위 “억압된 것의 귀환”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쏘넬드, 무어하우스를 거쳐 마지막 편단에서 만들어지는 제인과 로체스터의 가정의 의미를 모색한다.

■ 주제어 ■ 제인 에어, 가정성, 식민주의 불안, 편단, 버사

* yrhan2@knou.ac.kr

1 서론

『제인 에어』(*Jane Eyre*)의 버싸(Bertha)를 제인 안에 억압된 “가장 진정하고, 어두운 더블”(truest and darkest double; Gilbert and Gubar 360)로 보아 작품을 버싸를 극복하는 제인의 성장소설로 해석하는 독법에 대해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은 식민적 타자인 버싸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유럽 중심 서사의 맹점을 지적한다 (243-49). 스피박의 주장은 기존 서구 페미니즘이 유럽 여성과 비유럽 원주민 타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기존 페미니즘 담론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로라 E. 도날드슨(Laura E. Donaldson)은 스피박이 버싸와 제인의 차이만 주목하여 이들의 연대 가능성, 버싸의 전복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71). 이렇게 기존 비평들은 버싸를 일차적으로 제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로체스터(Rochester)를 공고한 남성 주체로 읽어 로체스터의 자기분열적인 속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식민주의 담론의 양가성을 주목한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논의를 토대로 엘시 미치(Elsie Michie)는 로체스터를 통해 식민주의의 죄책감과 불안을 읽어낸다. 그는 작품에서 로체스터가 아일랜드인이면서 동방 전제군주라는 영국의 두 타자로 재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식민주의의 양가성이 로체스터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593).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의 내재적 분열적 요소를 강

조한 미치의 해석에 동의하지만 로체스터가 존 에어(John Eyre)와 같은 식민지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로체스터와 버사와의 관계를 통해 식민주의 담론이 함의하는 불안의 메커니즘을 읽어내고자 한다. 로체스터는 일차적으로 식민지에 사업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주민 크리올 여성과 결혼하여 부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존 에어와 다른 유럽 남성으로 등장한다. 물론 로체스터가 자메이카에서 버사의 오빠 메이슨(Mr. Mason)을 도와 노예 무역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작품은 그런 모습보다 버사의 남편 로체스터의 갈등에 집중한다. 본 논문은 식민주의의 불안이 존 에어의 식민 사업이 아닌 로체스터와 버사의 관계를 통해 제시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버사의 광기를 로체스터의 불안, 즉 식민 담론의 자체적 분열이 투사된 것으로 읽는다. 흥미로운 점은 제인에게도 버사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제인과 로체스터가 마치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지점을 바로 제인과 로체스터의 무의식의 교집합인 버싸라는 타자의 자리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쏘필드(Thornfield), 무어하우스(Moor House)를 거쳐 이들이 펀딘(Ferndean)에서 결합하게 되는 것은 버싸를 배제하기 보다 오히려 그녀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위 “억압된 것의 귀환”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제인과 로체스터가 만드는 펀딘에서의 가정의 의미를 모색할 것이다.

로체스터는 자메이카의 크리올 버싸와 결혼하면서 부를 얻는다. 흥미롭게도 그 배후에는 로체스터의 아버지와 형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로체스터는 아버지를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an avaricious, grasping man; 304)으로 여기는데, 그런 아버지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 대신 아버지와 형은 상속에서 소외된 차남 로체스터와 부유한 집안의 버싸 메이슨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여 성사시킨다. 인류학적 교환 모델에 따르면다면, 결혼은 여성을 교환하면서 남성 연대를 공고히 하는 제도이다 (Sedgwick 25-26).¹⁾ 여기서는 로체스터가 마치 결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성으로 서인도 제도에 팔려가는 것 같은 인상이다. 가부장제는 장자 상속을 통해 남성 중심의 ‘순수한’ 혈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는데, 이 때 차남은 소외된다. 상속을 받지 못한 차남은 아버지와 형의 권유로 재산 획득을 목적으로 영국과 서인도 간의 일종의 트랜스 아틀란틱 결혼 구도에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유산을 상속받은 장자가 후손을 낳지 못하거나 그 전에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차남에게 혈통 유지의 의무가 이행될 것이지만 로체스터와 서인도 제도의 여인 사이에 생긴 아이는 혼혈이므로 순수한 영국 혈통이 유지될 수 없다. 이는 로체스터의 아버지가 간과한 문제로, 작품은 실제로 로체스터의 아버지와 형이 모두 죽는 설정을 통해

1)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으로는 마르셀 모스(Mauss)의 *Essai sur le don* (1967), 클라우드 레비 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1967), 게일 루빈(Gayle Rubin)의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1975)를 참조.

가부장제의 혈통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장자 상속의 틈새를 파고 든다.

로체스터와 버사의 갈등은 어디서 유래할까? 작품은 로체스터의 입을 빌어 표면적으로는 버사의 정신병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단순히 유전적인 이유라는 언급 외에는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로체스터가 결혼 후에야 비로소 버사의 광기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버사의 광기는 그들의 결혼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된다. 순수한 영국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국 가부장제가 움직이는 숨은 논리라면, 만약 상속에서 배제되어 유럽-서인도 대륙간 결혼 시장에 팔려간 차남이 장남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로체스터가 버사와의 결합에서 갖는 불안은 바로 자신의 후손이 순수한 영국 혈통을 물려받지 못한 혼혈일 것이라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²⁾ 본 논문은 로체스터가 이러한 불안을 버사의 광기로 투사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광기와 불모성을 연결하는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작품에서 그려지는 버사의 광기를 바로 이 논리에 기대 버사의 모성지우기 프로젝트의 징후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시, 아버지와 형이 로체스터와 버사의 결혼에 주선자로 나온다는 점은 바로 영국성을 유지하려는 가부장제의 논리에 의해 바로 영국성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 즉 가부장제의 자체 모순을 드러내는 설정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은 식민주의에 내재한 혼혈에 대한 불안을 영국 자국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차남 콤플렉스와 결부시키면서 가부장제와

2) 여기서 '혼혈'에 대한 불안은 호미 바바가 설명하는 식민 담론의 양가적인 요구에 대한 이론에 기반한다(126).

식민주의가 서로 부딪히는 순간을 포착한다. 다시 말해, 로체스터의 분열적 자아는 궁극적으로 그 뿌리를 영국 가부장제가 식민주의와 만나면서 드러나는 자체적 모순에 두고 있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불안을 버사의 광기로 투사하여 회피하려 하지만, 버사는 이미 로체스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는 버사를 완전히 버릴 수 없고 그녀를 영국 안으로, 쏘필드로 들여온다. 페어팩스(Fairfax) 가문의 저택, 따라서 영국적인 공간이었던 쏘필드는 버사가 들어오면서 결국 타자를 가두는 방식으로 품은 영국의 공간으로 변한다. 가부장제에서 태동한 식민주의적 불안이 영국의 가정을 타자가 존재하되 가려진 공간인 쏘필드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로체스터는 이미 자신의 분열된 일부인 버사를 쏘필드에 가둠으로써 배제하고 새로운 영국 여성을 만나 가부장제가 부여한 과제인 순수한 영국성 계승을 이행하고자 한다. 로체스터의 상대로 영국(England)을 연상시키는 미스 잉그램(Miss Ingram)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잉그램이 아닌 제인 에어에게 매력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로체스터가 제인을 관찰하는 장면을 보자.

그녀가 당신[제인]을 떠나자 당신은 뭔가 깊은 몽상에 빠졌소. 당신은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 창가를 거닐면서 당신은 때때로 수북이 내려쌓이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소. 당신은 흐느끼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또 천천히 걸어가면서 몽상에 잠기는 것 같았소. . . . 때때로 당신의 눈엔 기뻐하는 광채의 부드러운 흥분의 기색이 있었지. . . . 당신의 표정은 청춘의 혼이 천국의 이상

으로 높이 날아 ‘희망’의 뒤를 기꺼이 훨훨 날개를 펴고
쫓아갈 때의 달콤한 생각을 보여주었소.³⁾

When at last she left you, you lapsed at once into deep
reverie: you betook yourself slowly to pace the gallery. Now
and then, in passing a casement, you glanced out at the
thick-falling snow; you listened to the sobbing wind, and
again you paced gently on, and dreamed. . . : there was a
pleasurable illumination in your eye occasionally, a soft
excitement in your aspect . . . : your look revealed rather the
sweet musings of youth, when its spirit follows on willing
wings the flight of Hope, up and on to an ideal heaven. (313)

로체스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상에 빠진 제인의 모습이다.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상상하는 제인의 모습에 주목
했는데, 흥미롭게도 쏘필드에 와서 제인이 공상에 빠지는 순간
과 버사의 소리가 교묘하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반복 제시된
다.

처음 쏘필드에 도착하여 페어팩스 부인을 따라 저택을 구경
하는 중 제인은 상상에 빠진다. “여기까지 온 나는 3층의 앞쪽
과 뒤쪽 방들을 갈라 놓은 긴 복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저쪽
먼 한끝에 조그만 유리창이 하나 있을 뿐 좁고 낮고 어둡침침
했다. 양쪽에 줄을 지어 달린 작고 검은 문들은 어쩐지 ‘푸른
수염을 가진 사나이의 성’이란 이야기에 나오는 복도를 연상시
켰다”(I lingered in the long passage to which this led, separating
the front and back rooms of the third story: narrow, low, and dim,

3) 작품 인용부분 번역은 임금순의 번역을 참고하여 필자의 수정이 첨가되었다. 임금순 역, 『제인
에어』, 살롯 브론테 저. 서울: 해원출판사, 1994.

with only one little window at the far end, and looking, with its two rows of small black doors all shut, like a corridor in some Bluebeard's castle; 107). 바로 다음 버사의 웃음소리가 이어진다: “조용히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적막한 곳에서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웃음 소리가 내 귀청을 때렸다. 기이하고 분명하며 형식적인 억지 웃음 소리였다”(While I paced softly on, the last sound I expected to hear in so still a region, a laugh, struck my ear. It was a curious laugh; distinct, formal, mirthless; 107). 또한 1권 12장에서 제인이 3층으로 올라가 끝없이 펼쳐진 길을 보면서 상상하는 장면에서도 버사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 유일한 위안은 3층의 복도를 이리저리 걸으며 복도의 정적과 고독 속에서 마음놓고 내 앞에 나타나는 찬란한 환상에 내면의 눈을 돌리는 것이다—그러면 무수한 환상들이 내 앞에서 빛났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따금 그것은 괴로움을 주기도 했으나 마음에 생명력을 가득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나는 무엇보다 우선 들어도 끝없는 이야기에 마음의 귀를 열어 주었다—내 상상력이 창작하고 끊임없이 서술하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레이스 폴의 웃음 소리를 자주 들었다”(Then my sole relief was to walk along the corridor of the third story, backwards and forwards, safe in the silence and solitude of the spot, and allow my mind's eye to dwell on whatever bright visions rose before it—and certainly they were many and glowing; to let my heart be heaved by the exultant movement which, while it swelled it in trouble, expanded it with life; and best of all , to open my

inward ear to a tale that was never ended—a tale my imagination created, and narrated continuously When thus alone, I not unfrequently heard Grace Poole’s laugh; 109-110).⁴⁾ 로체스터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제인은 방에서 로체스터를 생각하다가 문득 무엇이 그를 이 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대답이 되듯 바로 이어서 버사의 소리가 또 들린다: “이런 상념 후에 내가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거의 알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희미한, 독특하고 구슬픈, 내 생각에 바로 위에서 들리는 웅얼거림을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I hardly know whether I had slept or not after this musing; at any rate I started wide awake on hearing a vague murmur, peculiar and lugubrious, which sounded, I thought, just above me; 147).

이러한 일련의 서술로 알 수 있는 것은 제인의 상상이 버사에 닿아있다는 점이다. 제인의 상상은 ‘무의식적으로’ 버사를 향한다. 관련해서 제인이 결혼식 전날 밤 버사와 조우하는 장면은 특히 중요하다. 제인은 이를 처음에는 마치 꿈과 같이 일종의 상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면서도 찢긴 자신의 베일을 발견하고는 혼란에 빠진다. 길버트와 구바는 여기서 버사의 환영을 제인의 아바타라고 하면서 제인의 자아가 내일 로체스터와 결혼하게 될 제인 로체스터와 이를 원하지 않는 제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즉 버사로 분리되어 나온다고 한다 (359). 나는 버사와 제인의 교집합을 꿰뚫어보는 통찰에는 동의

4)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이 장면에서 그레이스 풀의 웃음(사실은 버사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어색하고 갑작스럽다며 작가의 분노가 개입되는 장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90). 그러나 사실 그레이스 풀의 웃음이 버사의 웃음 소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제인의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이 제인 안의 버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러한 연결을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정교한 구성으로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씨가 제인의 일부가 된다고 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제인의 실재(the Real)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버씨는 상징계 안에서는 제인에게 결코 나타날 수 없기에 단지 제인의 상상이라는 해방구를 통해 찰나적으로만 존재를 드러내는 제인의 실재인 것이다. 제인의 ‘상상’은 가부장제로 대변되는 상징적 질서에서 해방되려는 바로 그 틈새로,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억압하는 여성 욕망과 밀접하다. 제인의 상상력은 그녀를 애정으로 감싸줄 수 있는 온전한 가정이 없는 제인이 향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녀의 희망이자 삶의 원동력, 그녀 스스로를 주인으로 만드는 정신적인 힘이다. 따라서 제인이 상상력으로 닿게 되는 버씨는 여성 욕망의 실재라고도 볼 수 있다. 제인이 버씨를 실제로 대면했던 그 순간 기절하는 장면은 버씨가 제인의 의식이라는 상징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실재임을 증명한다(284). 제인은 그 순간 태어나서 두 번 께로 의식을 잃었다고 술회한다. 이는 게이츠헤드(Gateshead)의 붉은 방(redroom)에서 제인이 처음 기절했던 장면과 닿아있다. 제인의 상상은 궁극적으로 버씨라는 상상계를 넘어선 자신의 실재를 향하여 움직이고 결국 제인은 결혼식 전날 그 실재를 대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불안을 버씨의 광기로 투사했다는 점에서 로체스터 안에 이미 자신의 분열 자아로 버씨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버씨가 제인의 실재라는 점에서 제인에게도 버씨가 내재해 있다. “때때로 나는 당신에 대한 기묘한 느낌을 받는다—특히 당신이 지금처럼 내 옆에 있을 때: 마치 나의 왼쪽 갈비뼈 밑 어딘가에 끈이 있어서 당신의 조그만 몸의 그곳과 만

나는 부분에 달린 똑같은 끈과 풀리지 않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I sometimes have a queer feeling with regard to you—especially when you are near me, as now: it is as if I had a string somewhere under my left ribs, tightly and inextricably knotted to a similar string situated in the corresponding quarter of your little frame; 252)고 로체스터는 고백한다. 누구보다 제인을 자신의 반쪽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부인 버사를 제인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버사는 로체스터와 제인의 교집합으로 로체스터의 분열된 반쪽은 버사-제인이다. 작품은 식민담론으로 분열된 자아와 여성 욕망의 실재를 버사라는 인물에 동시에 투영하여 이 둘의 닮은 꼴을 지적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로체스터와 제인은 이 교집합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만 할 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사실은 버사라는 점을 아직 언어화, 의식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로체스터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끌어당기는 영국 여성 제인을 얻기 위해 버사를 계속 감금한 상태로 둘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체스터와 제인을 서로 끌어당기게 하면서도 갈라놓는 존재는 버사다. 결혼식 당일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합은 버사라는 실존 인물을 알고 있는 그녀의 오빠 메이슨에 의해 저지된다. 여기서 버사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이 때 제인이 처음부터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배신감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다만 제인이 로체스터에게 결정적으로 거리를 느끼게 되는 지점은 로체스터가 버사를 공개하면서 그녀와 제인을 대조하는 부분이다.

이 사람이 내 부인이오 . . . 이것이 바로 내가 처음 알게 된 유일한 부부의 포옹이고 바로 내 여가를 위로해 주는 애정의 표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야 말로 (자신의 손을 내[제인] 어깨에 얹으며) 내가 원하는 여자요. 이 어린 소녀는 지옥의 어귀에서 이처럼 엄숙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악마의 장난을 지켜보고 있소. 나는 고약한 라구(스튜) 요리를 먹은 다음에 입가심으로 이 여자를 원했던 거요.

That is my wife . . . Such is the sole conjugal embrace I am ever to know—such are the endearments which are to solace my leisure hours! And this is what I wished to have (laying his hand on my[Jane’s] shoulder): this young girl, who stands so grave and quiet at the mouth of hell, looking collectedly at the gambols of a demon. I wanted her just as a change after that fierce ragout. (294)

로체스터는 버사와 제인을 대조하여 제인의 동정심에 호소한다. 그는 속여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을 정도로 버사가 자신의 부인이라는 점이 끔찍했다고 토로한다. 로체스터의 과거에 대해 제인은 “당신을 진심으로 동정한다”(I do earnestly pity you; 306)라고 말하긴 하지만 로체스터를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로체스터가 제인의 실재인 버사를 배제하는 논리로 제인을 포섭하려 했다는 역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인도, 로체스터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강렬하게 사랑하긴 하지만 그를 거부하게 되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제인의 생각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에게 내재화된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언

어로 수용된다: “내 자신은 내가 돌본다. 고독할수록, 벗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더욱 더 자중하리라. 나는 하느님이 주시고 인간이 시인한 법률을 지키리라 . . . 법과 도의는 유혹이 없을 땐 필요가 없다. 지금 같은 때 육체와 영혼이 그 법과 도의의 엄격함에 반역을 일으켰을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I care for myself. The more solitary, the more friendless, the more unsustained I am, the more I will respect myself. I will keep the law given by God; sanctioned by man. . . . [Laws and principles] are for such moments as this, when body and soul rise in mutiny against their rigour: stringent are they; inviolate they shall be; 317). 로체스터에게는 전 부인이 있으므로 제인은 그와 결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인은 자신이 로체스터에게 여전히 강한 사랑을 느끼는 이유를 그녀의 육체적 열정, 즉 그녀가 로우드 학교에서 내재화한 금욕적 기독교 가치에 엄격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인은 로체스터의 강렬한 구애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로우드 학교가 표방하는 논리의 표면에 기대다. 제인은 로체스터에게서 도망가야 한다. 쏘필드를 떠나기 전 제인은 꿈속에서 “내 딸아, 유혹에서부터 도망쳐라”(My daughter, flee temptation; 319)라는 마치 신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를 역시 기독교적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제인은 버사라는 자신의 불편한 실재를 아직 의식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를 배제하는 기독교적 금욕주의에 기대어 육체적 욕망에 거리를 두고자 한다. 제인이 로체스터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어딘가 잘못되었다 느끼는 것은 로체스터가 제인의 불편한 실재인

버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제인은 로체스터와 자신이 버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는 바로 그 의문의 자리를 기독교적 해석으로 억압하면서 쏘필드를 떠나 횃트크로스(Whitcross)를 거쳐 무어하우스(Moor House)로 향한다. 하지만 이는 제인 역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갇혀 버사라는 실재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3 무어하우스: 식민주의의 다른 얼굴, 또 다른 쏘필드

쏘필드를 떠난 제인의 서사의 표면은 기독교 이데올로기로 점철된다. 제인은 횃트크로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고독과 고통을 삼 일 동안 경험한 후 세인트 존(St. John)의 구제를 받는다. 마치 그리스도가 삼 일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 그녀는 제인 엘리엇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무어하우스에 들어간다. 무어하우스는 단적으로 말해, 쏘필드와 겹으로는 반대인 공간이다. 쏘필드는 버사라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감금한, 하지만 그것의 잠재적인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고딕 성과 같다면, 무어하우스는 그 이름과는 달리 고대 서구 문명과 기독교적 이상이 한 곳에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나는 문명의 공간이다. 쏘필드는 ‘육체’의 공간이었다면 무어하우스는 인간 이성의 온실과도 같은 곳으로 몸을 배제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들을 각각 대변하는 두 남성 인물들도 표면적 이미지는 대조적이다. 낭만주의적 영웅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 열정의 화신인 로체스터, 차갑고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된 세인트 존은 마치 몸과 정신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영국을 대변하는 듯하다. 세인트 존은 마치 구세주처럼 죽어가는 제인을 ‘구원’하며 등장하고, 무어하우스에서는 서구 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럽 고전들을 통해 제인이 재인간화 되는 공간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인은 이곳에서 세인트 존으로 표상되는 완전 무결할 것 같은 인간 정신의 세계에 대한 탈신비화 과정을 겪는다. 그 후에 비로소 제인은 버사클, 즉 여성 욕망의 실재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로체스터를 향할 수 있게 된다.

세인트 존은 로체스터와 명확하게 대조되지만 사실 이 둘은 제국/식민주의의 두 얼굴이다.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세인트 존의 삶이 처음부터 성스럽고 고결한 궤적만 그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세인트 존은 제인에게 약 일년 전에 자신이 신학교에 갔던 것을 후회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일년 전, 나는 굉장히 불행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커다란 실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천편일률적인 의무들이 나는 죽도록 지겨웠다. 나는 세상의 보다 활동적인 삶을 갈망했다”(A year ago, I was myself intensely miserable. Because I thought I had made a mistake in entering the ministry: its uniform duties wearied me to death. I burnt for the more active life of the world; 361). 세인트 존이 존 리버스(John Rivers)의 삶을 살던 시절, 그는 결코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열망이 어떻게 선교라는 종교적인 사명으로 전환되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구체적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세인트 존은 자신의 세속적 열망이 종교적 헌신

이라는 소명으로 이어진 것을 마치 신적인 계시에 의한 서사로 표현한다: “어둠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자, 빛이 터져나왔고 안도감이 찾아왔다: 나의 갑갑했던 존재는 단번에 끝없이 평원으로 펼쳐졌다—나의 힘들은 일어서라는 하늘의 부름을 들었다”(After a season of darkness and struggling, light broke and relief fell: my cramped existence all at once spread out to a plain without bounds—my powers heard a call from heaven to rise . . . ; 362).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인트 존이 자신의 이전 욕망을 부인하고 극복하여 종교적 신념에 헌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욕망의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것이 단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작품은 세인트 존의 종교적 헌신을 “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한다. 그의 헌신을 가능하게 한 추동력은 그의 큰 “야심”에 있다. 로자문데(Rosamunde)를 향한 세인트 존의 인간적 감정을 그의 몸의 변화를 통해 읽어내는 제인에게 세인트 존은 “감정이 아닌 이성 이 나의 인도자이다: 나의 야망은 한계가 없다; 더 높이 솟아오르려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겠다는 나의 욕망은 만족될 줄 모른다. 나는 인내, 끈기, 성실, 재능을 높이 여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들이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고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ason, and not Feeling, is my guide: my ambition is unlimited; my desire to rise higher, to do more than others, insatiable. I honour endurance, perserverance, industry, talent; because these are the means by which men achieve great ends, and mount to lofty eminence; 375)

라고 말한다. 세인트 존은 자신이 인간적 욕망을 억제하는 이 유가 그의 야심이 그것으로만 만족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세인트 존의 세속적 야심과 정신적 헌신에의 열망이 같은 종류의 에너지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은 세인트 존의 헌신을 세속적 야심의 다른 면으로 그린다.

제니 샤프(Jenny Sharpe)도 지적하듯 영국은 미국의 독립, 1830년대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서인도 플랜테이션에서 동양의 인도로 방향을 돌려 문명화 사업으로 제국주의 노선을 변경하는데, 『제인 에어』에는 그 역사적 여정이 반영되어 있다(28). 서인도에서의 식민 무역과 인도에서의 문명화 사업은 근본적으로 제국주의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제 폐지 이후 제국주의의 그림이 노예 무역에서 영혼 구제라는 명목으로 옮겨가는 역사적 추이는 세인트 존의 ‘개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세인트 존의 성스러운 열정도 세속적인 야심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잠재적으로 로체스터나 존 에어와 같은 식민주의자들과도 통한다. 세인트 존과 로체스터는 영국 제국주의의 두 얼굴이다. 따라서 무어하우스 플롯은 제인이 빠져나온 쏘필드 플롯의 다른 변주일 뿐이다. 제인은 이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로체스터를 향할 수 있게 된다.

제인은 쏘필드에서 로체스터의 구애를 받았듯, 무어하우스에서는 로체스터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유사한 세인트 존에게 칭혼 받는다. 로체스터는 제인이 상상에 빠진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면, 그리고 그 상상의 실체는 여성 욕망의 실재를 향

한 열정이었다면, 세인트 존 역시 비슷하게 제인의 숨은 내적 열정에서 로자문드와 다른 자질을 발견한다. 로체스터와 세인트 존 모두 기존 사회에서 일탈하는 제인의 열정에 주목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열정과 통한다고 느낀다. 세인트 존은 모튼의 교사직을 맡아 초라하지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며, 부를 얻고서도 욕심부리지 않고 나누며, 아무리 어렵고 무리가 따르는 공부량을 주어도 묵묵히 해내는 제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인에게 “당신은 온순하고, 부지런하고, 사심 없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며, 용감하다;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영웅적”(you are docile, diligent, disinterested, faithful, constant, and courageous; very gentle, and very heroic; 403)이라고 한다. 그는 제인에게서 자신의 이상적인 반쪽의 모습을 발견한다. 세인트 존은 “나는 희생의 흥분과 불꽃에서 기뻐하는 영혼을 발견한다”(I recognised a soul that reveled in the flame and excitement of sacrifice; 403)고 하면서 제인이 선교사 아내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세인트 존은 제인의 내적인 열정을 끊임 없이 밖으로 팽창하려는 야망이 안으로 수렴되어 자기 부정적 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강인함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하느님과 자연은 당신을 선교사의 부인으로 의도했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정신적인 것이요: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소”(God and nature intended you for a missionary’s wife. It is not personal, but mental endowments they have given you: you are formed for labour, not for love; 402)라고 신의 이름을 전유하여 말한다. 세인트 존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 종교적 소명으로

전환되었듯 제인 안에 있는 열정이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더욱 ‘위대한’ 희생을 감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제인은 영혼 구원의 이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인트 존의 부인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랑 없는 결혼을 거부한다. 세인트 존과 제인이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위대한’ 희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다.

존 에어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제인은 처음에 그 재산을 자신의 유일한 혈족으로 밝혀진 리버스(Rivers) 남매들과 나누고 무어하우스를 가꾼다. 유산을 받았으니 “당신에게 이젠 어떤 목표, 어떤 목적, 어떤 야심이 있느냐”(What aim, what purpose, what ambition in life have you now?)고 묻는 세인트 존에게 제인은 “나의 첫째 목표는 무어하우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 . . 그 다음에는 닦는 것 . . . 나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다이아나와 메리를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 . . . 나의 야심은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는 이상적인 환대를 베푸는 것”(My first aim will be to clean down Moor House . . . ; my next to rub it up . . . My purpose, in short, is to have all things in an absolutely perfect state of readiness for Diana and Mary . . . and my ambition is to give them a beau ideal of a welcome when they come; 390)이라고 대답한다. 즉 제인은 무어하우스를 일종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욕망한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가정의 일을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에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가정적인 쾌락에 도취되어 있는 당신의 불균형

한 열정을 식히도록 노력해 주시오. 그렇게 끈질기게 육체의 유대에만 매달리지 마시오. 당신의 불굴의 정신과 열의를 당당한 대의를 위해 아껴두시오. 케케묵은 일시적은 목적으로 인해 낭비를 삼가시오.

I warn you of that—and try to restrain the disproportionate fervor with which you throw yourself into common place home pleasures. Don't cling so tenaciously to ties of the flesh; save your constancy and ardour for an adequate cause: forbear to waste them on trite transient objects. (391)

세인트 존은 가정에서 만족을 찾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높고 고귀한 이상을 좇는 것에 비해 열등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러한 그의 이분법은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육체를 가볍게 여기는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정신적이고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가정적인 것과 육체를 배제한다. 이는 제인이 로자문대를 향한 세인트 존의 감정을 포착해 내고 이를 언급하지만 세인트 존은 그것을 극복해야 할 육체적인 쾌락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375).

제인은 이렇게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비인간적이기까지 한 세인트 존의 ‘야망’에 대해 처음에는 가정이라는 영역이 그의 야심에 비해 작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응접실은 그의 영역이 아니야 . . . : 히말라야 산맥이나, 카프르 족이 사는 숲이나, 흑사병으로 저주를 받은 기니 해안의 습지가 차라리 그에게 알맞아. 평온한 가정 생활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가정은 그의 활동 영역이 아니니까. 거기서는 그의

재능은 고여서 썩지”(This parlour is not his sphere . . . : the Himalayan ridge, of Caffre bush, even the plague-cursed Guinea coast swamp, would suit him better. Well may he eschew the calm of domestic life; it is not his element: there his faculties stagnate; 393). 하지만 제인은 이러한 세인트 존의 자질에 공감하지는 못한다. 문제는 이러한 세인트 존이 자신의 가정을 배제하면서 이루려는 ‘위대한’ 야심에 제인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세인트 존은 제인이 유산을 리버스 남매들과 나누는 것을 보고 제인이 세사적 가치에 초연할 수 있는, 따라서 희생을 통한 더 큰 야심에 봉사할 수 있는 금욕적인 자질을 가졌다고 판단한다 (403). 하지만 제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나누고, 무어하우스를 가꾸는 것은 세인트 존 식의 위대한 야심을 위해 소소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인트 존과 달리 제인에게 가정적인 가치들은 결코 소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열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제인에게 희생이 아니다. 제인에게 위대한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적인 것, 주변 혈족과의 유대라는 가치를 욕망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인트 존은 이러한 제인의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를 통해서만 상황을 판단한다. 그래서 제인에게 가정적이고 육체적인 영역을 극복하여 이룰 수 있는 선교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세인트 존 식의 ‘가정’의 안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제인이 생각하는 가정은 세인트 존의 생각대로 감정을 배제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제인과 세인트 존의 설전이 펼쳐지는

동안 작품은 제인이 자신과 세인트 존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으로 느끼면서 갑갑함을 느끼고 있음을 여러 차례 표현한다.⁵⁾ 제인은 결국 세인트 존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러한 지배-예속 관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다. 세인트 존은 신의 목소리를 전유하여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여성을 위치시키고자 한다. 제인은 “나는 내 마음을 신에게 드릴 거예요 . . . 당신은 [내 마음을] 원치 않아요”(Oh! I will give my heart go God . . . You do not want it; 406) 라고 말하며 세인트 존이 전유했던 신의 목소리를 그로부터 분리해내면서 세인트 존과 동등한 위치에 선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저항한다.

이전까지 제인은 세인트 존의 사고 방식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야심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했다면, 여기서서는 세인트 존에게 정면으로 반박한다. 어떻게 이러한 전환이 가능할까? 제인이 세인트 존의 목소리에서부터 신을 분리하기 바로 직전에 세인트 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내를 원하오: 죽을 때까지 내가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조력자가 필요하단 말이요”(I want a wife: the sole helpmeet I can *influence* efficiently in like, and *retain* absolutely till death; 406, 인용자 강조). 세인트 존의 이러한 목소리는 여성의 욕망을 철저히 남성성의 지배 아래 두는 가부장제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았다. 이 문장에서 주어 나(I)는 부인(wife)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녀를 손아귀에 **쥘(retain)** 수 있는 전제 군주와도 같다. 마

5) “Oh, I wish I could make you see how much my mind is at this moment like a rayless dungeon, with one shrinking fear fettered in its depths”(403); “My iron shroud contracted round me”(404); “He prizes me as a soldier would a good weapon” (405).

치 로체스터가 버사를 배제하는 논리로 제인을 포섭하려는 것이 모순적이듯, 선교를 통해 인류를 구원한다는 ‘위대한’ 이성에 봉사하는 세인트 존 식의 감정을 배제한 가정은 결국 여성의 욕망을 엄격하게 배제하는 가부장적인 논리에 기반한다. 바로 여기, 세인트 존의 대사가 가부장제의 논리와 철저히 공명하는 이 순간, 제인은 ‘선교’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싸여진 무시무시한 가부장적 논리의 핵심을 파악하고 세인트 존의 실체를 꿰뚫어본다.

나는 그의 결함을 보았다. 그것들을 나는 이해했다. 나는 지금 황무지의 독 위에 앉아 있는, 내 앞에 있는 말쑥한 그의 모습을 보며, 나처럼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한 남자의 발 밑에 내가 있음을 알았다. 그의 완고와 독단성은 베일이 벗겨졌다. 그에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의 불완전함을 느낀 나는 용기가 생겼다. 나는 동등한 인간과 함께 있었다. 나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과—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항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였다.

I saw his fallibilities: I comprehended them. I understood that, sitting there where I did, on the bank of heath, and with that handsome form before me, I sat at the feet of a man, caring as I. The veil fell from his hardness and despotism. Having felt in him the presence of these qualities, I felt his imperfection and took courage. I was with an equal—one with whom I might argue—one whom, if I saw good, I might resist. (406)

쏘필드를 떠나 무어하우스에 왔지만 무어하우스에서도 여성의 욕망은 배제된다. 쏘필드나 무어하우스 모두 제인을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이제 제인은 세인트 존을 탈신비화하고 무어하우스의 한계를 직감적으로 느끼나 쏘필드에서 버사를 배제했던 로체스터에게서 즉각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무어하우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식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과도기적 순간에 제인은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세인트 존과 기도를 한다. 그런데 세인트 존의 영향력이 제인을 지배하려는 그 순간,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의 목소리 대신 제3의 공간인 편딘으로부터 들려오는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419). 로체스터의 목소리는 제인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참조점이 된다. 이에 제인은 세인트 존으로부터 떨어져서 방에 들어가 “자신의 방식으로 기도”(prayed in *my way*; 420, 인용자 강조)하게 되고 결국 다시 로체스터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4 편딘: 쏘필드와 무어하우스를 지나 만들어지는 가정

제인은 세인트 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서 ‘실재’의 목소리, 즉 편딘에서의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로체스터는 어떻게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제인이 쏘필드를 떠나고 난 후 로체스터가 어떻게 지냈는지 작품은 자세하게 추적하지 않는다. 쏘필드 저택에 불이 나서 버사는 죽고 로체스터는 불구가 되었다는 제3자의 목격담을 통해서 그간의 이야기들이 제시될 뿐이다. 그런데 화재 목격자가 전달하는 로체스터에 대한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위, 아래 모두 불바다가 됐을 때 주인님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자고 있는 하인들을 깨우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는 **독방에 갇힌 미치광이 부인을 구해 내시려고 되돌아가셨어요.** . . . 로체스터님이 지붕 문으로 빠져나가 지붕 위로 올라가신 걸 분명히 보았어요. 모두들 ‘버싸!’라고 주인님이 부르시는 걸 들었죠. 그리고 부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어요.

. . . and he went up to the attics when all was burning above and below, and got the servants out of their beds and helped them down himself—and *went back to get his mad wife out of her cell.* . . . I witnessed, and several more witnessed Mr. Rochester ascend through the skylight on to the roof: we heard him call ‘Bertha!’ We saw him approach her; (428, 인용자 강조)

목격자에 따르면 먼저 쏜필드로부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지만 로체스터는 버싸를 구하려다가 사고를 당해 불구가 된다 (429). 물론 제인을 속이고 이중 결혼을 하려했던 로체스터가 처벌을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작품은 더 복잡한 서사로 구동된다. 이미 논의한 대로 버싸를 로체스터의 분열된 자아로 본다면, 로체스터가 버싸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받아들여려는 의지로, 그리고 그의 불구된 몸은 로체스터가 버싸를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인, 분열된 자아와 합일한 표지로 읽어볼 수 있다. 즉 로체스터가 버싸에게 투사했던 식민주의적 불안을 다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로체스터의 불구된 몸은 분열을 극복한 주체의 모습, 식민주의적 불안을 끌어안은 영국의 실체이다. 따라서 버싸와 합일하여

주체가 된 로체스터의 목소리가 세인트 존에게서부터 해방되어 자신 안의 버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제인의 귀에 닿게 된다. 제인과 로체스터는 모두 자신들 안의 버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렇다면 로체스터는 무슨 연유로 버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하고자 불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 작품은 이에 대한 로체스터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체스터의 변화에 대한 실마리는 제인이 쏘필드를 떠나기 전 로체스터와 나누는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체스터에게 버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인은 영국을 떠나서 살자는 로체스터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 때 로체스터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잡듯, 전제 군주가 노예를 예측하듯 제인의 몸을 움켜쥐는다: “그의 격분은 절정에 달했다. . . 그는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걸어와 내 팔을 잡고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은 나를 단숨에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육체적으로 용광로의 열풍과 열화에 노출된 보릿대처럼 축 늘어지는 것 같았다. 정신적으로 나는 아직 나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다”(His fury was wrought to the highest: . . . he crossed the floor and seized my arm, and grasped my waist. He seemed to devour me with his flaming glance: physically, I felt, at the moment, powerless as stubble exposed to the draught and glow of a furnace—mentally, I still possessed my soul. . . 317). 로체스터는 무력으로 제인을 움켜쥐 수 있지만 제인의 영혼까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시 말해 제인의 욕망을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로체스

터의 입장은 다음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붙들 수 없어. 야만적이고 아름다운 생물이여! 이 가냘픈
몸을 찢어발겨도 내 폭행은 포로를 놓칠 뿐이야. 난 그 집
의 정복자는 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의 진흙으로 된 육체
의 승리자라고 주장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도
망쳐 버릴테지.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야. 당신의 영혼
이야—의지와 정신을 가진, 부덕과 순결을 몸에 지닌—덧
없는 육체만이 아니고, 당신이 원한다면 자진해서 내 곁으
로 조용히 날아와서 내 품에 파고들 수도 있소. 만일 무리
하게 붙잡으면 향기처럼 내 손아귀에서 사라져 버릴테지.
내가 당신의 향기를 들이키기 전에.

Whatever I do with its cage, I cannot get at it—the savage,
beautiful creature! If I tear, if I rend the slight prison, my
outrage will only let the captive loose. Conqueror I might be
of the house; but the inmate would escape to heaven before
I could call myself possessor of its clay dwelling-place. And
it is you, spirit—with will and energy, and virtue and purity—
that I want: not alone your brittle frame. Of yourself, you
could come with soft flight and nestle against my heart, if
you would: seized against your will, you will elude the grasp
like an essence—you will vanish ere I inhale your fragrance.
(318)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무력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
지 못한다. 왜냐하면 로체스터는 제인이 노예처럼 자신의 의지
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알
기 때문이다. 여기서 로체스터는 제인의 욕망을, 다시 말해 제

인 안의 버싸성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가부장적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남성의 강요로 여성이 절대 종속될 수 없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자신이 “정복자”는 되더라도 제인의 내면까지 통제할 수 없음을 통렬하게 인식한다. 나중에 로체스터가 버싸를 받아들이는 힘도 바로 이 장면에서 제인의 영혼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깨달음, 즉 여성 욕망을 일방적으로 가둘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로체스터는 버싸로 대변되는 식민주의의 자기 분열적 불안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인은 쏘필드, 무어하우스를 거치며 자신 안의 버싸, 즉 여성의 욕망을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게 되면서 이 둘은 다시 만난다. 새로 태어난 이들이 만나는 곳은 쏘필드도, 무어하우스도 아닌 제 3의 펀딘(Ferndean)이다. 버싸를 배제함으로써 구축된 단일한 영국성의 신화인 쏘필드는 로체스터가 자기 안의 불안을 받아들이면서 해체되고 펀딘이라는 공간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펀딘은 처음 “상당히 오래되고 적당한 크기와 건축상 이렇다 할 만한 점이 없는 건물로 숲 속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a building of considerable antiquity, moderate size, and no architectural pretensions, deep buried in a wood; 429)고 묘사된다. 펀딘은 로체스터 가문의 영지에 속한 곳으로 로체스터의 아버지가 구입한 곳이다. 펀딘은 살기가 불편하고 위치가 건강에 좋지 않아서 아무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430). 로체스터도 차마 버싸를 펀딘으로 보내지 못하는데, 그곳에 보내는 것을 심지어 “간접 살인”(indirect assassination; 300)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황폐한 공간이다. 살아

있는 생명도 죽음과 비슷한 지경으로 만드는 이러한 유사 죽음의 공간은 불구가 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쏘필드 과수원에 있는 오래된, 벼락맞은 밤나무”(the old lightning-struck chestnut tree in Thornfield orchard; 444)에 비유될 수 있는 로체스터의 망가진 현재 처지와 매우 흡사하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황폐한 불모의 편딘에 제인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함께 찾아온다는 점이다. 제인은 “당신은 고목이 아니에요—벼락맞은 나무는 더욱 아니에요. 당신은 싱싱하고 건강해요. 돌아나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든 간에 식물은 당신의 뿌리 근처에서 새싹을 틔울거예요”(You are no ruin sir-no lightning-struck tree: you are green and vigorous. Plants will grow about your roots, whether you ask them or not, because they take delight in your bountiful shadow; 444)라고 말하며 불구가 된 로체스터에게서 생명과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다. 실제로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탄생하며 로체스터는 작품 말미에 어렵게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회복한다. 작품 곳곳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편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집중되어 나타난다. 로체스터와 제인은 이렇게 폐허인 편딘에 환상처럼 생명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낸다. 로체스터는 편딘에서 제인에게 두번째로 청혼하면서 “제인의 부드러운 선교는 영속적인 기쁨이 될 것”(Jane’s soft ministry will be a perpetual joy; 445)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드러운 선교”란 제인이 편딘을 가정화하는 (domesticate) 힘으로, 자기 분열을 받아들이면서 해체되는 영국성 (로체스터)을 재생, 재건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쏘필드의 로체스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버사라는 타자를 짓밟고 존재하는 ‘영국적’인 가정이 아니라 그 타자가 아자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되는 제3의 가정이다.

제3의 가정이란 식민주의의 자체적 분열이 해체되면서 구축되는 펀딩에서의 가정이다. 단일한 영국성의 신화가 탈신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워지는 새로운 가정이다. 펀딩은 삼촌 존 에어가 식민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을 제인이 상속받아 이루는 가정이다. 여기서 제인이 식민 사업의 돈으로 가정을 만든다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정리해버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은 펀딩의 안주인인 제인이 마지막에 세인트 존의 순교적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동정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는 내 눈에서 인간적 눈물을 이끌어 냈지만 나의 마음을 신성한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The last letter I received from him, drew from my eyes human tears, and yet filled my heart with Divine joy; 452). 무어하우스에서 마주한 세인트 존의 전제 군주적인 실체를 뒤로 하고 펀딩으로 와서 가정을 꾸리는 제인이 세인트 존에 삶에 공감하는 코멘트를 남겼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제인의 가정은 세인트 존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세인트 존의 식민주의적 문명화 사업으로 인한 자기 희생 앞에서 흘릴 수 있는 제인의 눈물이 로체스터의 황폐한 몸에서 새로운 싹을 피워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펀딩은 식민주의를 대표하는 세 명의 남성들—로체스터, 존 에어, 세인트 존—을 모두 겪고 그들이 만들어 낸 역사의 상흔을 배제하지 않고 다 짊어진 채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

세인트 존은 명망있는 가문 출신이었으나 외삼촌 존 에어의 권유로 투기를 하게 되고 이에 실패하여 재산을 잃게 된 바 있다 (357). 리버스 가문은 따라서 식민 투기로 인해 몰락한 지배층으로 그려진다. 이는 식민 사업에서 영국의 돈이 투기 자본의 형태로 개입되어 있으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영국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존 에어의 식민 사업은 리버스가의 투기 자본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존 에어의 이 가문의 경제적 몰락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세인트 존이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설정 자체가 아마도 집안의 쇠락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 상속에서 제외된 로체스터와 같은 차남, 그리고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이들은 식민 사업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Stone 115). 그렇다면 존 리버스를 세인트 존으로 만들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존 에어의 식민 사업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인트 존의 자발적 희생의 저변에는 존 에어의 재산의 그림자가 맴돌고 있다.

이러한 식민 사업으로 얻어진 재산은 로체스터를 불구로 만들고, 세인트 존의 자기 희생적 죽음으로 내몰게 된 죄책감을 담고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 식민주의의 어두운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돈이 제인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 그 돈으로 제인은 제3의 가정을 일구어 낸다. 이는 존 에어의 재산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식민 담론의 자기분열적 상흔을 여성 주체를 통해 아물게 하는 설정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작품은 결국 영국적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두 영국 남자 (로체스터, 세인트 존)를 식민 사업의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포용하면서 극복해가는 곳으로 편단을 제 3의 가정의 자리로 만든다.

- 논문 투고 일: 2023.01.13
- 심사 완료 일: 2023.01.30
- 게재 확정 일: 2023.01.30

참고 문헌

- Bhabha, Homi.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October* 28, Discipleship: A Special Issue on Psychoanalysis. MIT P, 1984: 125-33.
- Brontë, Charlotte. *Jane Eyre*. Ed. Smith, Margaret. Oxford: Oxford UP, 2000.
- Donaldson, Laura E. "The Miranda Complex: Colonialism and the Question of Feminist Reading." *Diacritics* 18.3. 1988: 65-77.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P, 1984.
- Michie, Elsie. "White Chimpanzees and Oriental Despots: Racial Stereotyping and Edward Rochester." *Jane Eyre*. Ed. Newman, Beth. Boston: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 1996: 584-98.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P, 2015.
- Sharpe, Jenny. *Allegories of Empire*. Minnesota: U of Minnesota P, 1993.
-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ritical Inquiry* 12.1. 1985: 243-61.
- Stone, Lawrence.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NY: Harper & Row, 1977.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Ed. Shiach, Morag. Oxford: Oxford UP, 2000.

Jane and Rochester's Ferndean: Rethinking Colonialism and Domesticity in *Jane Eyre*

Yehrim Ha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NOU

Reconsidering existing criticisms of *Jane Eyre* that comprehend Bertha as Jane's oppressed self, this paper contextualizes Bertha within complex layers of colonial discourse. *Jane Eyre* explores issues of gender along with colonialism via three 'colonialists': John Eyre, Rochester, and St. John. Although different at first glance, John Eyre and St. John exemplify the two modes of English imperialism: the former as the aspiration for colonial material profit, while the latter represents a manifestation of 'spiritual' imperialism. However, not affiliated with any of these, Rochester's colonial wealth derives from marrying a Creole woman. Colonialism, in Rochester's case, thus revolves around his issues with Bertha. Taking into account of Homi Bhabha's study on ambivalence inherent in colonial discourse, this article interprets Bertha's madness as a reflection of Rochester's colonial anxiety. Considering the resonance between Jane and Bertha, as well as how Jane and Rochester seem to share a soul with each other, I interpret Bertha as an intersection between Jane and Rochester.

Their union becomes only possible when Bertha is accepted and embodied, thus resolving the issue of so-called “return of the oppressed.” This reinterpretation of Bertha ultimately illuminates Jane and Rochester's domesticity in Ferdean.

| Key Words | Jane Eyre, Domesticity, Colonial Anxiety, Ferdean, Bertha

